

2026년 8월 다섯 주, 구역 공과

30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30절(신약 319)-

예배순서

• 찬송: 350/ • 기도: 구역원 중/ • 말씀 속으로/ • 헌금찬송: 348/ • 주기도문

환영/ 마음 열기

삶에서 뭘 할 때 가장 좋은가?(예: 맛집 갈 때, 경치 좋은 곳 갈 때, 취미 생활 등)

말씀 속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과 죽음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 1:20~21) 바울은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단 하나의 절대적인 권면을 던진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 1:27a) 여기서 ‘생활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폴리테우오마이)는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의무를 다하며 합당하게 살아가다’, ‘겉맞게 생활/정치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해 세운 식민 도시로,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과 명예를 지키며 주변 야만 민족들과 구별된 로마식 삶의 방식을 고수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의 문화적 배경을 들어 성도들에게 영적 정체성을 일깨운다. 성도의 본향은 하늘나라이며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러므로 세상의 풍조와 영적 공격 한복판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책임과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회용 티켓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원리이자 기준이다.

2.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하여 _____에 협력해야 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 구체적 모습은 공동체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싸우는 것이다.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 1:27b) 본문에는 두 가지 생생한 군사적 그림 언어가 등장한다.

① ‘서서(στήκετε, 스테케테)’: 군대가 대열을 이루어 큰 방패를 맞대고 굳건

히 서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스크럼의 형태를 의미한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적 연합을 뜻한다.

② ‘협력하는(συναθροῦντες, 쉬나쓰레오)’: 고대 로마 전투에서 병사들이 한 줄로 나란히 서서 함께 함성을 지르며 전진하고 투쟁하는 모습을 뜻한다. ‘함께 경주하다’, ‘함께 투쟁하다’라는 의미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 빌립보 성도들을 직접 보든지, 혹은 죽어서 함께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교회가 하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독불장군식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가 복음의 가치관으로 단단히 뭉쳐 어깨를 맞대고 나아가는 영적 동역이다.

2.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_____을 내어 쏘아야 한다.

당시 빌립보는 온갖 신상과 신전, 토착 샤머니즘, 점술이 판을 치는 영적 암흑지대였다(행 16:16).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검투 경기와 우상 제물의 술 파티가 일상적인 문화였다. 이러한 도시에서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점을 치지 않으며, 세속적 오락을 끊어내는 복음적 삶을 선택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과 바보 취급, 심지어 투옥과 고문 같은 극심한 핍박을 감수하는 일이었다(행 16:21).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빌 1:29~30) 바울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역시 은혜의 한 영역임을 역설한다. 교회가 한마음으로 스크럼을 짤 때, 세상의 위협과 대적자들을 향한 두려움은 사라진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영적 현실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사탄은 세상의 ‘가치 가격표’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과 영혼은 값싸게 여기게 만들었다. 가정, 사랑, 진리와 같은 절대적 가치는 무가치하게 여기게 하면서, 편리함과 개인의 쾌락은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우상으로 둔갑시켰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삶의 본질적 목적은 한 가한 소리로 치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선망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주적은 여전히 사탄이다(엡 6:12). 아프리카 초원에서 무리를 이탈한 초식동물이 맹수의 표적이 되듯, 공동체를 떠나 홀로 고립된 신앙인은 세속의 공격에 쉽게 무너진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방패를 맞대어 연합함으로써 뒤바뀐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고 승리해야 한다.

나눔과 기도

- 로마 군사들이 방패를 맞대고 스크럼을 짜서 대적을 막아냈듯이, 홀로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고난이나 영적 침체 앞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버텨내어 승리했던 간증을 나누어 보자.
-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 홀리 위크 특별새벽기도회를 위해 기도하자.